

개신교인 51%, ‘헌금하는 만큼 복 받는다’ 생각해!

봉헌은 하나님께 준비한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 중 ‘헌금’은 문자적으로 예물, 돈을 바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헌금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 인식될까? 헌금을 드릴 때의 생각이나 드리는 방식, 헌금 종류에 대한 인식 등은 성도마다 차이가 있다. 그동안 헌금에 대한 단편적인 실태나 인식 조사는 여러 번 있었지만, 성도의 헌금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물질관, 교회 재정 평가 등을 조사 전문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가 최초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흥미로운 결과가 몇몇 눈에 띄었는데 신앙이 깊은 성도일수록 ‘돈을 위해 기도한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회 성도의 절반가량(51%)이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 교인들의 헌금관을 살펴보는 한편, 물질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의 헌금 의식 조사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 교회 출석자
• 조사 방법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On-line Research)
• 표본 규모	총 1,000명(유효 표본)
• 표본 추출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율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 표본 오차	± 3.1% (95% 신뢰구간)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3년 6월 2일 ~ 6월 8일(7일간)
• 연구 분석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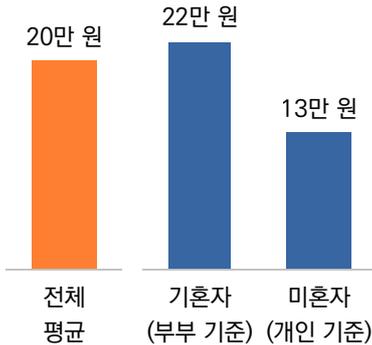
01

[헌금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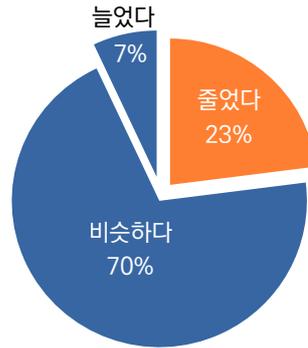
코로나 이후 전체적인 헌금 액수 감소!

- ▶ 성도들의 월평균 헌금은 2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기혼자의 월평균 헌금액(부부 합산)은 22만 원, 미혼자는 13만 원으로 기혼자의 경우 1.7배 정도 월평균 헌금액이 미혼자보다 많았다.
- ▶ 월평균 헌금이 코로나 이전 대비 변화했는지 확인한 결과, '줄었다'(23%)가 '늘었다'(7%)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헌금 액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월평균 헌금액 (헌금 봉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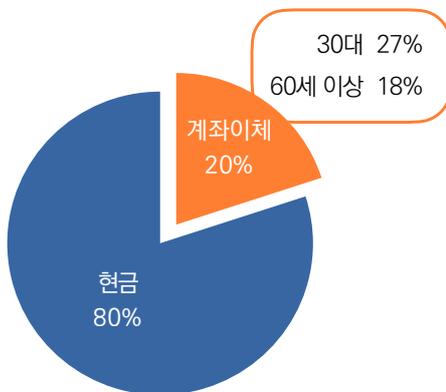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헌금 증감 (헌금 봉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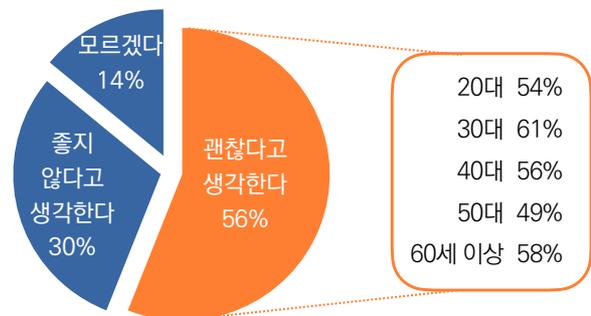
◎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 '온라인 헌금 방식 괜찮다'

- ▶ '헌금 시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으로 냈다'(80%)가 '온라인 계좌이체 한다'(20%)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도 5명 중 1명가량으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계좌이체' 비율의 경우 30대가 27%로 가장 높았으나, 60대 이상의 경우도 18%로 전체 평균(2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 ▶ 헌금을 직접 교회에서 내지 않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또는 모바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개신교인의 절반 이상(56%)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나 60대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헌금 봉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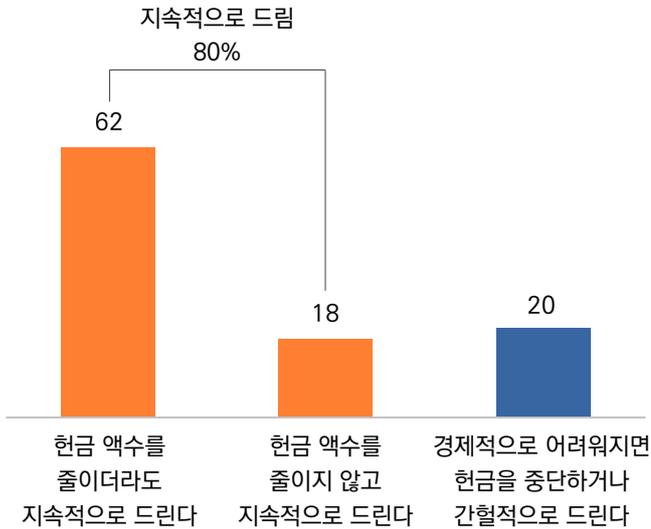
[그림]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모바일로 하는 헌금 봉헌 인식



◎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헌금 액수를 줄이지 않는다’ 18%

- ▶ 헌금 봉헌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때에도 헌금을 지속적으로 드릴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헌금을 중단하거나 간헐적으로 드린다’ 비율은 20%였고, ‘헌금 액수를 줄이더라도’(62%) 혹은 ‘헌금 액수를 줄이지 않고’(18%)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응답이 80%로 대부분이었다.
- ▶ 특히 5명 중 1명 가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헌금 액수를 줄이지 않고 있어 주목 된다.

[그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헌금 지속 여부 (헌금 봉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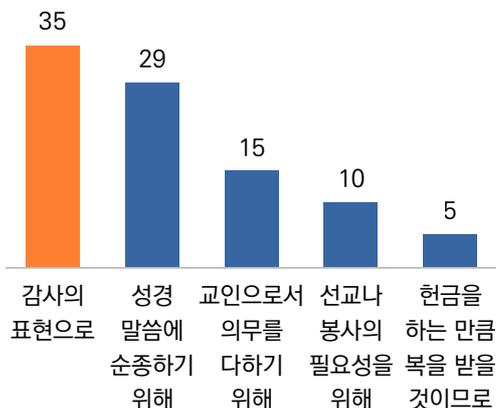
02

[헌금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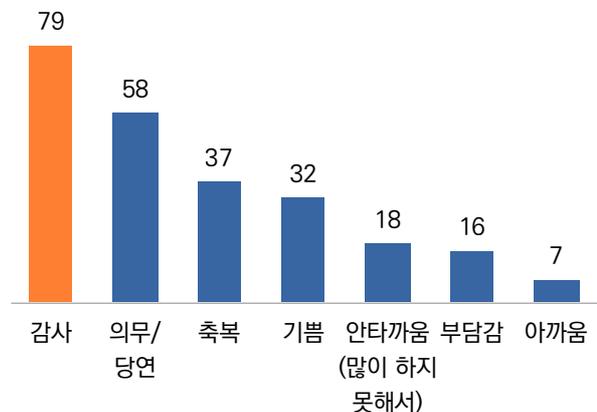
헌금 내는 교인 10명 중 8명,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 ▶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사의 표현으로’란 의견이 가장 많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29%,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15%, ‘선교나 봉사의 필요를 위해’ 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헌금하는 교인’ 대상으로 헌금을 드릴 때의 생각(중복응답)에 관해 물었더니 ‘감사’, ‘의무/당연’, ‘축복’, ‘기쁨’, ‘안타까움(많이 하지 못해서)’ 등의 순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그림] 헌금 드리는 이유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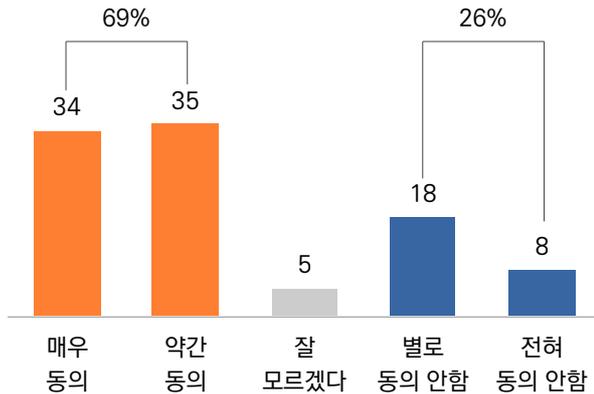
[그림] 헌금 드릴 때 드는 생각 (헌금 봉헌자,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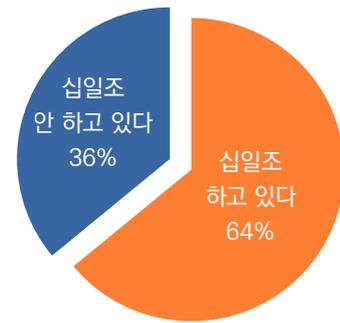
◎ 개신교인, '진정한 신자라면 십일조 내야한다' 69%

- ▶ '진정한 신자라면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동의율을 물었다. 10명 중 7명꼴로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해 신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 ▶ 한편 현재 출석 교인 대상으로 십일조 헌금을 하는지에 관해 물은 결과, 3명 중 2명 가까이(64%)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십일조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하지 않는다'는 36%로 교회 출석자 3명 중 1명 이상은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진정한 신자라면 십일조를 내야 한다' 인식 동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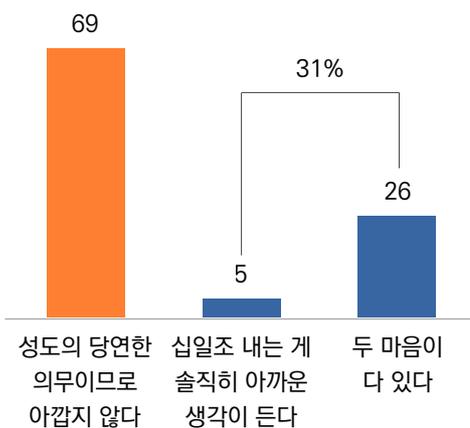
[그림] 십일조 봉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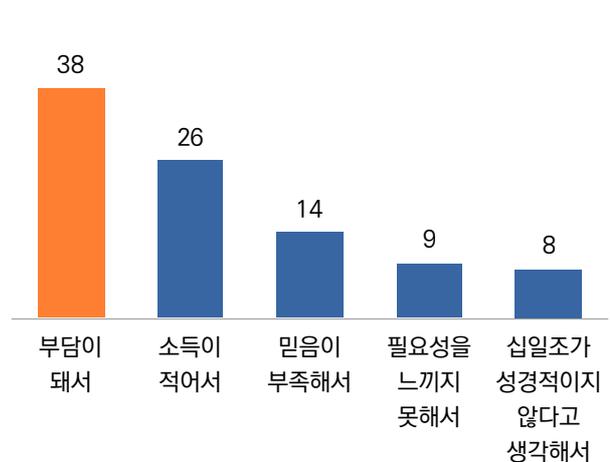
◎ 십일조 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아깝다' 31%

- ▶ 성도들은 십일조 생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성도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아깝지 않다'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두 마음이 다 있다' 26%, '십일조 내는 게 솔직히 아까운 생각이 든다' 5%로 나타났다.
- ▶ 십일조를 하지 않는 성도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담이 돼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소득이 적어서' 26%, '믿음이 부족해서' 1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림] 십일조 봉헌시 드는 생각 (십일조 봉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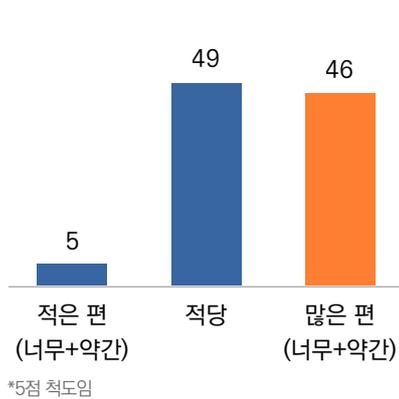
[그림] 십일조 하지 않는 이유 (십일조 미봉헌자, 상위 5위, %)



◎ 개신교인 절반 정도는 ‘교회의 헌금 종류 많은 편’이라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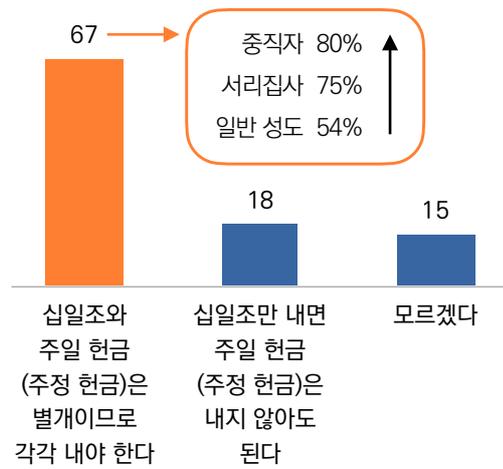
- ▶ 교회에서 하는 헌금 종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적당하다’와 ‘많다(너무+약간)’가 각각 49%, 46%로 비슷하게 응답됐고, ‘적다(너무+약간)’는 5%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헌금 종류가 많다는 인식이 높았다.
- ▶ 십일조와 주일 헌금(주정 헌금)은 별개인지 아니면 주일 헌금이 십일조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꼴은 ‘십일조와 주일 헌금은 별개이므로 각각 내야 한다’고 보았고, ‘십일조만 내면 주일 헌금(주정 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18%에 불과해 십일조와 주정 헌금은 별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 ▶ 교회 직분별로 보면, 직분이 높을수록 ‘십일조와 주일 헌금은 별개’라는 인식이 높았다.

[그림] 교회의 헌금 종류 인식* (%)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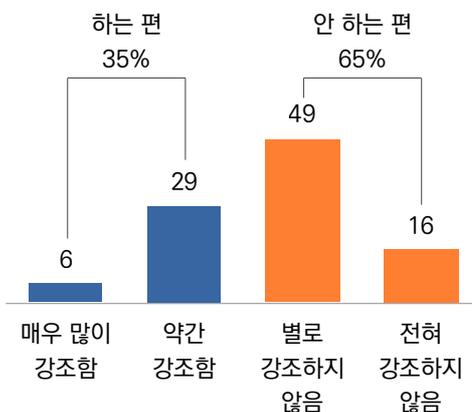
[그림] 주일 헌금(주정 헌금)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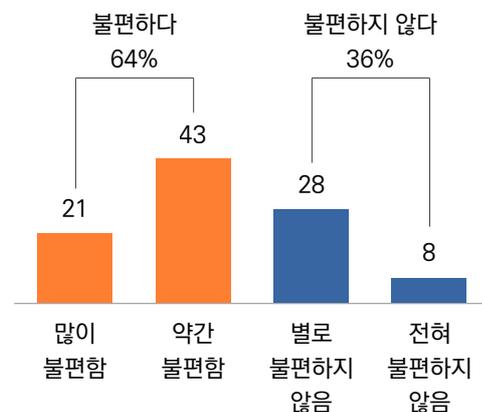
◎ 담임목사가 헌금 강조하면 ‘불편하다’ 64%!

- ▶ 교인들에게 현재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평소 헌금에 대해 강조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강조한다(매우+약간)’ 35%, ‘강조하지 않는다(전혀+별로)’ 65%로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헌금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 담임목사가 헌금에 대해 강조한다고 응답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헌금 강조를 들을 때의 느낌을 물었더니 ‘불편하다’(많이+약간) 64%, ‘불편하지 않다’(전혀+별로) 36%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경우와 월평균 헌금 수준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 담임목사의 헌금 강조 여부 (%)



[그림] 담임목사의 헌금 강조시 불편함 정도 (담임목사가 헌금 강조하는 교회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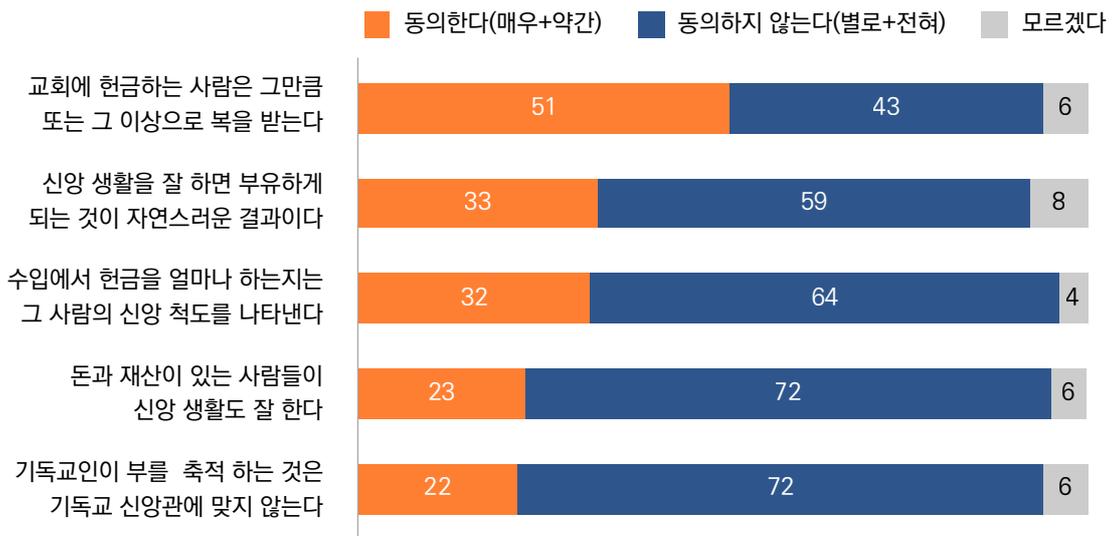
03

[헌금과 신앙/교회에 관한 의식]

개신교인 51%, '헌금하는 만큼 복 받는다' 생각해!

- ▶ '헌금과 신앙에 대한 의식' 측면에서 보면 개신교인(교회 출석자)의 51%가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고 응답해 절반 정도는 '헌금'과 '복'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은 연관성이 없다는 의식이 강하고, 헌금 액수와 그 사람의 신앙적도는 관련성이 없으며, 돈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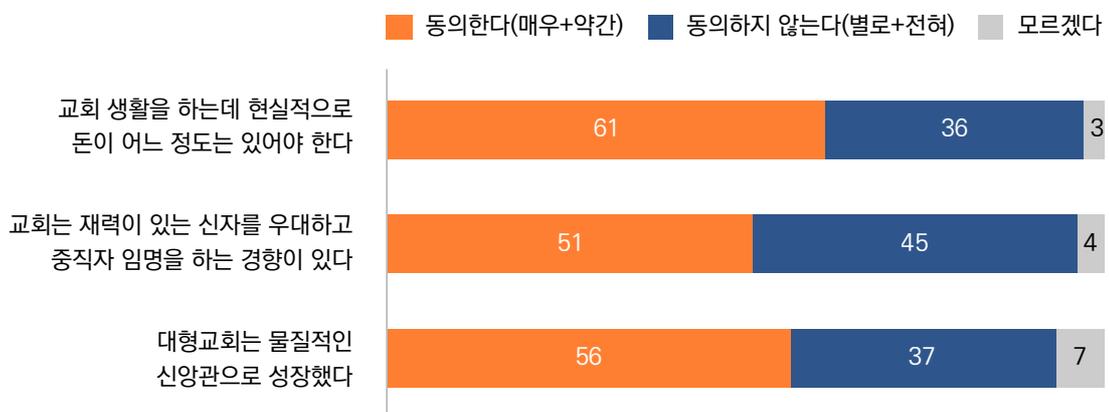
[그림] 헌금과 신앙에 대한 의식 (각 항목별, 4점 척도, %)



◎ 개신교인 10명 중 6명, '교회 생활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

- ▶ 출석 교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헌금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매우+약간)을 물었다. 먼저 '헌금과 교회에 대한 의식' 영역에서 살펴보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61%), '대형교회는 물질적인 신앙관으로 성장했다'(56%), '교회는 재력이 있는 신자를 우대하고 중직자 임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51%)에 대해 각각 50%대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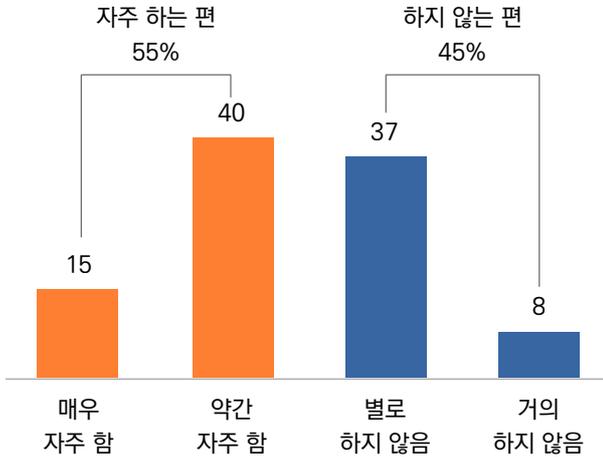
[그림] 헌금과 교회에 대한 의식 (각 항목별, 4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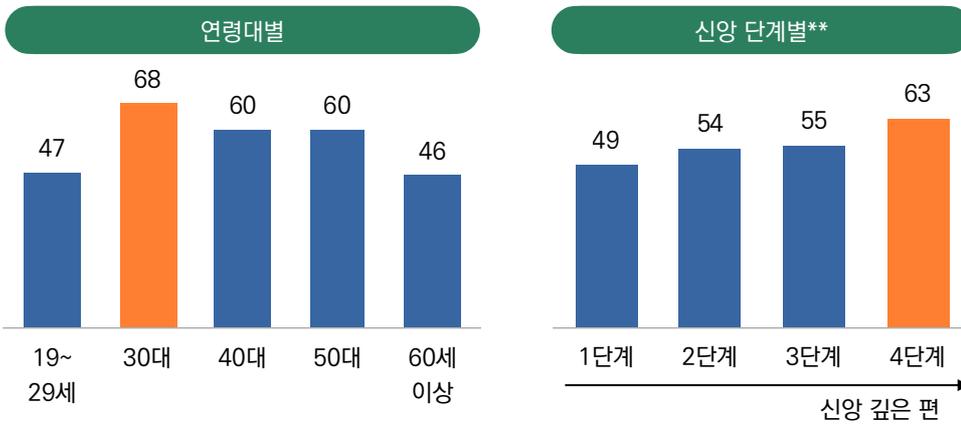
◎ 개신교인, 신앙이 깊을수록 돈과 관련된 기도한다!

- ▶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질(돈)과 관련된 기도를 얼마나 할까? 이에 대해 '자주 하는 편'(매우+약간) 55%, '하지 않는 편'(거의+별로) 45%로 자주 한다는 응답이 10%p 정도 높았다.
- ▶ 주목할 점은 신앙이 깊을수록,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돈과 관련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 점이다.

[그림] 물질(돈)과 관련된 기도 빈도 (%)



[그림] 물질(돈)과 관련된 기도한다 ('매우+약간' 비율*, %)



*4점 척도임

**신앙 단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분을 더욱 알기 원한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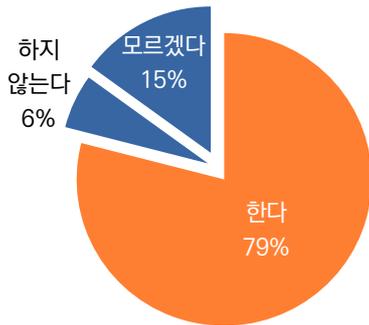
04

[교회의 재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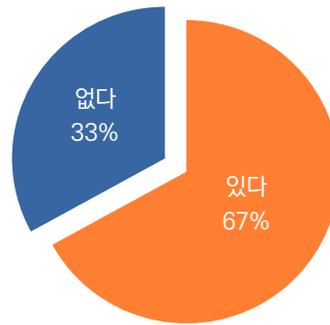
교회 출석자 3명 중 1명은 교회 재정 보고 받은 적 없어!

- ▶ 출석 교회 내 매년 재정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대부분의 교회(79%)에서 재정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 보고를 '하지 않는다' 또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21%로 재정 보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 최근 5년간 재정 보고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 67%, '없다' 33%로 출석교회의 재정 보고를 받은 경험이 없는 성도는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의 연간 재정 보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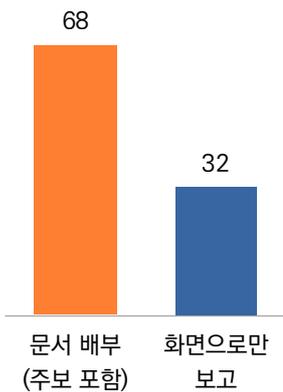
[그림] 최근 5년 간 출석교회의 재정 보고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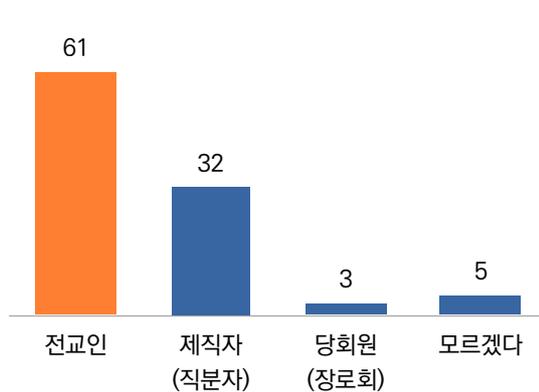
◎ '전교인' 대상으로 재정 보고 하지 않는 교회, 10곳 중 4곳!

- ▶ 재정 보고 경험 방식(재정 보고 받은 경험자 대상)으로는 '문서 배부(주보 포함)'가 68%로 '화면으로만 보고'(32%) 하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재정 보고 범위'는 '전교인'에게 보고된다는 응답이 6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직(직분자들)' 32%, '당회원(장로회)' 3%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재정 보고를 하고 있지 않은 교회는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의 재정 보고 방식 (재정 보고 받은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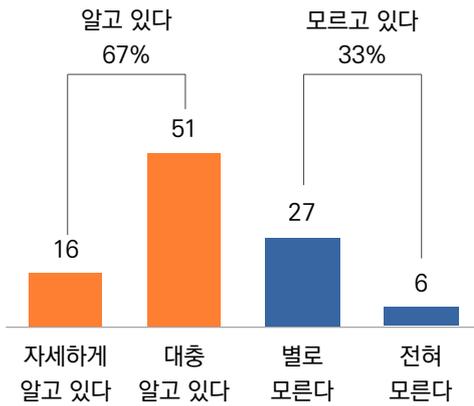
[그림] 출석 교회의 재정 보고 대상자 (재정 보고 받은 경험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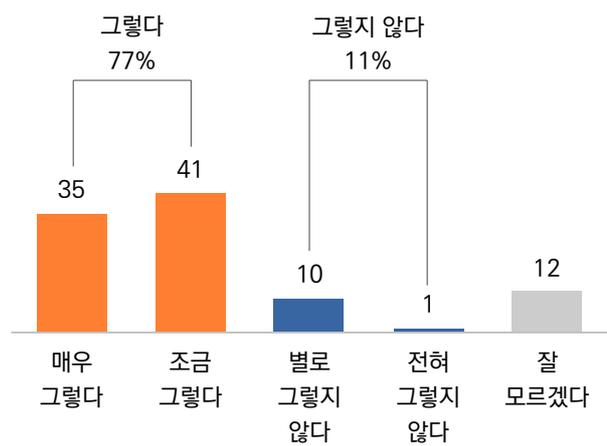
◎ 우리 교회, '성경적으로 바람직하게 재정 사용하고 있다' 77%!

- ▶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재정의 사용처를 아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67%는 '알고 있다'(자세히+대충), 33%는 '모른다'(전혀+별로)라고 응답해, 교인 3명 중 2명 정도는 교회 재정 사용처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출석 교회의 헌금 사용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10명 중 8명 가까이(77%)가 '그렇다'(매우+조금)고 응답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재정의 사용처 인지 (%)



[그림] 출석교회 재정의 성경적 사용 인식 (%)



*합계가 100%가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에게는
 '개신교인의 헌금 의식 조사' 보고서 전문을 추후에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넘버즈」 196호 분석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들의 64%는 십일조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충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기독교에서는 십일조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68%가 '진정한 신자라면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월평균 20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23%는 코로나 이후에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이 헌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61%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헌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드리고 18%는 헌금 액수를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기복 신앙이 일정 부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가 헌금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은 2008년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 실시한 '헌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 60%가 나온 것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의 성도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데 33%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신앙과 부유함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적지 않았다. 또한 55%는 돈을 위해 자주 기도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는데 신앙 단계에 따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곧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돈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는 뜻이다.

헌금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드러났다. 헌금 종류가 많다는 생각이 46%였는데 이전 조사 결과*(30%)에 비해 많이 늘었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헌금 강조를 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3분의 1을 넘었고 헌금 강조할 때 마음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64%(전체의 18%)였다.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 강조 여부와 상관없이 예전에 비해 더 예민하게 느낀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십일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38%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십일조를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5%)과 아깝지 않은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모두 드는 사람(26%)이 3분의 1 가까이 되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돈의 영향을 적지 않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2%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현실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51%는 교회는 재력이 있는 신자를 우대하고 중직자 임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형교회는 물질적인 신앙관으로 성장했다는 데에도 56%가 동의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산업화 및 경제 성장과 맞물려 성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교회에도 많은 재정이 축적되었고 그러면서 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중직자 임직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그 헌금을 드리기 어려운 신자들은 중직자 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에 크게 바뀐 내용은 헌금을 드리는 방법이다. 헌금으로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20%를 차지했고 계좌이체를 포함해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2008년 조사 때* 81%가 반대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식에 변화가 생겼고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당이 닫히고 직접 헌금을 드리기 어렵게 되면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5년간 재정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3%로 나왔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재정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79%가 교회에서 매년 재정 보고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보고를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곳은 61%에 불과했고, 직분자에게만 하는 경우가 32%였다. 그런데 화면으로만 보고 하는 경우가 32%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개교회들의 재정 문서를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있어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나마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교회 재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교회 신뢰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헌금과 재정 사용은 한국 교회에서 매우 민감하고도 뜨거운 주제이다. 기독교 신앙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신앙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건강한 교회로 알려진 유명 교회나 목회자가 돈 문제로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헌금에 대한 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재정 사용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그 건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자료 출처 : 바른교회아카데미, 헌금에 대한 인식조사, 2008.